

근관형태에 따른 근관세정과 형성법

하 정 흥 /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존학교실

상악 제 1대구치는 근관치료를 받게 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치아입니다. 또한 가장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술자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상악 제 1대구치는 영구치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맹출하여 오랜시간 동안 우식과 교합력에 노출되어 석회화가 되어 있어, 근관치료를 하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달공을 형성하였는데, 근관입구 위치 파악이 쉽지 않고, 석회화때문에 파일이 쉽게 근단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석회화가 일어난 제 1대구치의 근관형성 과정을 따라가면서, 각 치근별(근심협측, 원심협측, 구개측) 해부학적 구조, 만곡 등의 근관해부학, 방사선 사진의 판독을 통한 안전한 근관형성 전략 수립(전동파일 및 수동파일의 적절한 선택) 및 효율적인 근관세정에 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학력 및 경력

- *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학사, 석사
- *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박사
- * 경북대학교병원 인턴/레지던트 수료
- * 미국 University of Tennessee Health Science Center 방문연구원
- * 현,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존과장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보존학교실 교수